

진지희 “학폭 장면, 아픔에 초점... 스스로도 돌아봤죠”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2’ 중영 인터뷰

“시즌1·2 통틀어 가장 성장한 캐릭터”

기억에 남는 장면은 원형탈모 고백 신

최종회 제니와 등장... “시즌3 전개 궁극”

“펜트하우스’ 헤라펠리스 키즈 중 시즌 1·2를 통틀어 성장하는 크기가 가장 잘 보인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는 ‘제니’죠”

‘펜트하우스’에서 ‘강마리’(신은경)의 딸 ‘유제니’ 역의 진지희는 이번 시즌2에서 시즌1과는 또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펜트하우스2’ 종영을 맞아 지난 5일 화상으로 만난 진지희는 “시즌2에서 제니의 많은 변화가 보여졌는데 시청자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시즌2가 끝나고 시즌3에 들어갈 날 짜만 기다리고 있다”고 환한 웃음을 보였다.

진지희는 시즌1에서는 극 중 ‘오윤희’(유진)의 딸 ‘베로나’(김현수)를 괴롭혔지만, 시즌2에서는 베로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른 헤라펠리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이런 상황 변화에 “가장 큰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초반의 감정이나 톤 변화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시즌1에서 목소리가 하이톤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시즌2에서는 성숙해지고 훨씬 모습을 보여 주려고 했어요. 헤어스타일도 중간 단발로 좀 더 성숙하게 보이려 했죠.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모녀 사이의 감정이나 친구들한테 당했던 갖은 고

통 등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초점을 뒀어요. 이번에 촬영하면서 (장면상) 매일매일 울게 됐는데, 좀 더 감정의 깊이를 생각하게 됐죠”

제니는 시즌1과 180도 다른 입장이 된 상황에 대해 “사실 시즌1 마지막 부분에 (변화를) 살짝 눈치챘다. 로나를 챙겨주면서 그 편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왕따를 당할지는 상상을 못 했다. 로나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뜨겁게 불거진 학교 폭력 이슈와 맞물려 장면을 그려내는 데 걱정도 많이 했다. 그는 “그때 그 순간의 제니의 감정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 나중에 엄마한테 사실은 이랬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으면 했다. 한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아픔, 고통이 있구나 하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학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 연예계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즌2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따돌

림을 당해 원형탈모가 생긴 사실을 엄마에게 고백하는 신을 꼽았다. “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슬펐다. 그렇게까지 오열할지 저도 몰랐는데, 너무 서럽게 눈물이 나더라”라며 “시청자들도 저와 신은경 선배님의 호흡이 잘 보였던 신이라고 해주셔서 다음날 선배님께 말씀 드리고 함께 좋아했다”고 밝혔다.

또 극 중 강마리가 숨겨왔던 세신사 직업을 제니가 알게 되고, 이를 받아들여면서 함께 묵욕하는 장면도 화제가 됐다. 진지희는 “엄마 등을 밀어주면서 했던 대사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살짝 울컥한다. 당시 신은경 선배님의 (울음으로) 떨리는 등의 진동이 전해져 울컥했고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펜트하우스2’ 끝에 제니는 다시 로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다. 오윤희가 ‘민설아’(조수민)를 죽게 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강마리 등 헤라펠리스 사람들의 범행을 증언, 유죄 판결로 수감되는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제니는 로나를 미워한다기보다는 너무 좋아하고 내 편으로 하고 싶은데, 로나 엄마의 행동으로 자신의 엄마가 감방에 갔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하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애뜻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제니의 마음이 풀려서 다시 로나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시즌2 최종회에는 제니의 아버지 ‘유동필’ 역으로 박호산이 출소하며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극 중 ‘주단태’(임기준) 대신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난 유동필이 시즌3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진지희는 “시즌3 대본을 아직 한 회도 못 받았는데, 전개가 너무 궁금하다”며 “제니가 절이 많이 들어서 시즌3에서 두바이가 아닌 감방에 있었다는 아빠의 비밀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 제 생각이이다”라고 웃었다.



시즌3를 앞두고 제니의 변화도 기대했다. 그는 “시즌3에서는 그만 울고 싶다”며 “시즌1·2·3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어 연기자로서 감사하다. 시즌3에서는 희망사항이지만 제니도 연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캠퍼스 로맨스가 있어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아역으로 데뷔해 2009년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등으로 큰 사랑을 받은 진지희는 성인 연기자로서의 변신에 부담을 느꼈던 때도 있지만, 연기를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자연스럽게 성인 연기자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여러 말을 듣고 축박감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았다”며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 생각을 바꿨다”고 털어놓았다.

“아역을 한 건 사실이고, 그 이미지를 떨 수 없죠. 그래서 소중히 생각하려고 해요.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죠.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제가 갖고 있는 매력으로 할 수 있는 지금의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연기를 접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다. 작품 활동을 쉬면서 배우로서 재능이 없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연기하는 순간만큼 가장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연기만큼 열정을 갖고 끈기 있게 그 순간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지 못했어. 연기에 애정이 있고 배우를 하는 게 행복하죠. 지금은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쪽 나가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에게 감정을 잘 전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스트로, 정규앨범 ‘올 유어스’ 공개

2년3개월 만에 발매

그룹 ‘아스트로(ASTRO)’가 5일 오후 6시 두 번째 정규앨범 ‘올 유어스(All Yours)’를 공개했다.

약 2년3개월 만에 발매하는 정규 앨범이다. 여섯 명 완전체 컴백은 지난 미니 7집 ‘게이트웨이(GATEWAY)’ 발매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소속사 판타지오뮤직은 “올 유어스는 아스트로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는 포부를 담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타이틀곡 ‘원(ONE)’은 아스트로의 청량함에

역동적이고 강렬한 색이 더해진 일렉트로닉 댄스 장르다. 별빛처럼 찬란한 순간 소중한 사람과 하나 돼 영원히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총 10곡이 실린 앨범은 다양한 장르를 품었다. 수록곡에서는 ‘더어 마이 유니버스’, ‘스타 더스트’는 성숙한 보컬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와 미디어 템포의 곡들이다. 진진과 MJ, 라키의 자작곡 ‘올 굿(All Good)’, ‘별비(gemini)’, ‘우리의 계절(Our spring)’은 아스트로만의 색깔을 담았다.

이날 오후 12시에 선공개된 ‘원’ 뮤직비디오는 5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보이스킹’ 강호동 “급이 다른 스케일에 놀라”

강호동이 ‘보이스킹’의 첫 녹화를 마치고 소감을 밝혔다.

MBN 보컬 서바이벌 ‘보이스킹’이 13일 오후 9시50분 첫 방송된다. ‘보이스킹’은 ‘보이스퀸’, ‘보이스투트’ 등을 잇는 ‘보이스’ 시리즈다. 단 하나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남자 보컬들의 치열한 경연을 담아낸다.

첫 촬영을 마친 MC 강호동은 “일단 현장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첫 녹

화부터 급이 다른 스케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에너지 넘치는 현장의 한 가운데 있다 보니 절로 힘이 났던 것 같다”고 말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 강호동은 “‘보이스킹’에는 정말 다양한 참가자들이 등장한다. 진행자로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참가자들과 방송을 한다는 건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다. 이번 ‘보이스킹’에서는 틀을 깨는 리액션과 상상

초월 매력들이 준비돼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관전 포인트를 뽑아 달라는 요청에는 “감히 ‘모든 순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다양한 색깔의 참가자들이 경연을 빛내 주셨다. 매 순간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즐기고 싶다. ‘보이스킹’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맨, 4기 출범... ‘우린 아직 헤어지기 전’ 14일 발표



공식 SNS 계정 통해 포맨의 히스토리 티저 스포일러 영상 공개

가요계 대표 남성 보컬 그룹 포맨(4MEN)이 4기로 새롭게 돌아온다.

6일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포맨 4기가 오는 14일 오후 6시 첫 번째 싱글 ‘우린 아직 헤어지기 전’을 발표하며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에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포맨의 히스토리 티저 스포일러 영상을 공개하며 4기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고백을 시작으로 ‘못해’ 등 포맨의 대표곡 하이라이트가 차례대로 흘러나왔다.

이어 포맨 4기의 싱글 ‘우린 아직 헤어지기 전’ 음원 하이라이트와 함께 발매일시가 공개되었다.

포맨은 지난 1998년 1기가 발표한 정규 1집 ‘Four Men’을 시작으로 2017년 3기가 발표한 정규 6집 ‘REMEMBER ME’까지 19년 동안 리스너들의 감성을 충족하게 적시는 노래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포맨 4기는 바이브의 류재현 PD를 주축으로 한 프로듀싱팀 VIP와 포맨 1기 멤버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 윤민수 PD의 지원으로 다양한 보컬 톤이 결합된 음악을 선보이는 그룹으로 메이킹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맨 4기의 첫 번째 싱글 ‘우린 아직 헤어지기 전’은 오는 1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스칼릿 조헨슨 ‘블랙 위도우’ 7월 개봉

마블 스튜디오의 2021년 첫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 위도우’가 마블 스튜디오의 2021년 포문을 연다.

월드디즈니 코리아는 7월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블랙 위도우’의 모든 것을 담은 ‘마지막 선택’ 예고편을 5일 공개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차례 연기 끝에 개봉일을 확정 지었다.

‘블랙 위도우’는 어벤저스의 히어로 블랙 위도우(스칼릿 조헨슨)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거대한 음모를 막기 위해 어두웠던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고, 목숨을 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마블 스튜디오의 2021년 첫 액션 블록버

스터다.

예고편은 “그녀의 세상, 그녀의 비밀, 그녀가 남긴 것”이라는 카피처럼 블랙 위도우의 숨겨진 과거와 ‘어벤저스: 엔드게임’에서 충격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 등 블랙 위도우의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을 예고한다.

“우린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 “우린 끝내야 할 일이 있어”라는 의미심장한 대사와 옛 동료들인 ‘엘레나 벨로바’(플로렌스 퓨), ‘멜리나 보스코코프’(레이철 와이즈), ‘레드 가디언’(데이빗 허버) 등과 함께했던 블랙 위도우의 밝혀지지 않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해 호기심을 자아낸다.



아이유 ‘라일락’ 뮤비, 2천만뷰 돌파

유튜브 ‘핫이슈’ 1위

아이유의 ‘라일락’ 뮤직비디오가 2000만 뷰를 돌파하며 ‘아이유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유튜브에 공개된 아이유의 ‘라일락’ 뮤직비디오는 2주도 안 돼 유튜브 조회수 2000만을 넘어섰다.

6일 한국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인기 뮤직 비디오’ 순위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한국 유튜브 ‘핫이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아이유는 ‘라일락’을 비롯해 ‘Celebrity’, ‘Coin’ 등 발매한 노래마다 각종 음원 차트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며 ‘음원 강자’로서의 막강한 지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 손을 잡아’는 10년만의 여주행으로 멜론 차트 상위 10권 내에 랭크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뉴시스